

# 육군

2025년 12월호 No. 481



## DEC. 2025

이달의 이슈 장진호 전투, 흑한 속에 깃든 연대와 저지선 | **육군정책** 공간과 소통으로 공간 혁신, '공간력'으로 '전투력' 향상! | **육군소식** ① 정밀함과 담대함으로 하늘을 가른다 | **육군소식** ② 조국 수호의 다짐, 전선을 밝히는 송구영신(送舊迎新) | **육군소식** ③ '위대한 헌신, 영원히 가슴에' 새긴 '약속의 축제', K-밀리터리 페스티벌 '춘천대첩' | **이미기자단 NEWS** 야전 부대 소식 | **이미위리어** 최정예 300 전투원 폭발물처리팀 2군수지원어단 탄약대대 | **그날의 영웅들** 사선을 함께 넘은 한미 협력의 산증인, 최초의 카투사 | **이미 레전드 스펀** "준비, 싸" 초탄명중으로 기선을 제압하고 전장을 흔드는 견인포반 | **리더&리더** 배움을 통해 성장하며 솔선수범하는 군인이 되겠습니다 | **미담, 쓰담** 프레임에 담은 진심, 아름다운 선행으로 이어지다 | **육군의 무기** M2 & K6 중기관총 | **육군이 지키는 강산** 흑한의 습격, 한판 붙어보는거야 | **이미콘텐츠** 기획 다큐멘터리, 대한민국, 최동북단을 가다 / **이미플라:** 가을편. 환수영교래 | **ARMY LAB** 더 부드럽게 더 자유롭게! 로봇, 인간의 한계를 확장하다! | **이미오브박스** '사이버전 101'

# 장진호 전투, 흑한 속에 깃든 연대와 저지선



장진호 남단(南端)의 하갈우리(下葛隅里) 돌파작전 때 미 해병 1사단과 미 육군 7사단 31연대전투단 생존 인원으로 구성된 임시시대 병사들이 함께 방어를 하고 있다.(1950년 12월 6일, 출처: 자료 6·25전쟁과 대한민국의 꿈(안재철 저))

1950년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함경남도 개마고원 장진호 일대는 중공군의 기습을 받은 유엔군이 전멸 위기에 맞서 싸운 사투의 전장이었다. 당시 고립된 미 해병 제1사단과 미 육군 제7보병사단 예하 제31연대전투단은 흑한과 동상과도 맞서며, 12개 사단 규모 중공군의 맹공을 막아야 했다.

특히 제31연대전투단은 불과 2개 대대가 중공군 3개 사단(21개 대대)의 집중 공격을 5일간이나 필사적으로 저지했다.

이 혹독한 방어전에서 유엔군은 막대한 희생을 치렀지만, 중공군 역시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손실을 입으며 더 이상 남진하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장진호 전투는 유엔군의 흥남 철수 성공과 중공군의 공세 좌절을 이끌어 한반도 공산화 저지라는 전략적 전환점을 마련했다.

하지만 '흑한의 전설'로 기억되는 전투의 이면에는 스러져간 수많은 무명의 병사들과 오랫동안 조명되지 않았던 한국군 카투사, 대한민국 경찰의 숭고한 헌신도 있었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 머물렀기에, 많은 이들이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다.

## CONTENTS

### COVER STORY



대한민국 최북단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제22보병사단 장병들  
표지\_ 최병은 일러스트레이터

**발행일**  
2025년 12월(통권 제481호)

**발간등록번호**  
11-9840001-100012-06(국가기록원)

**발행**  
육군본부

**편집기획**  
정훈실 미디어소통과 042-550-6574

**인쇄**  
국방출판지원단 042-553-4505

**디자인**  
(주)부운디자인 042-255-6225

**홈페이지**  
www.army.mil.kr

### 승리하는 육군

- 04 육군정책**  
공감과 소통으로 공간 혁신, '공간력'으로 '전투력' 향상!
- 06 육군소식 ①**  
정밀함과 담대함으로 하늘을 가르다
- 08 육군소식 ②**  
조국 수호의 다짐,  
전선을 밝히는 송구영신(送舊迎新)
- 10 육군소식 ③**  
'위대한 헌신, 영원히 가슴에' 새긴 '약속의 축제',  
K-밀리터리 페스티벌 '춘천대첩'
- 12 이미기자단 NEWS**
- 16 이미위리어**  
최정예 300 전투원 폭발물처리팀 2군수지원여단 탄약대대

### 자랑스러운 육군

- 18 그날의 영웅들**  
사선을 함께 넘은 한미 협력의 산증인, 최초의 카투사
- 22 이미 레전드 썰**  
"준비, 싸!" 초탄명중으로  
기선을 제압하고 전장을 흔드는 견인포반
- 26 리더&리더**  
배움을 통해 성장하며 솔선수범하는 군인이 되겠습니다
- 28 미담, 쓰담**  
프레임에 담은 진심 아름다운 선행으로 이어지다
- 30 육군의 무기**  
M2 & K6 중기관총
- 32 육군이 지키는 강산**  
흑한의 습격, 한판 붙어보는거야!

### 공감하는 육군

- 34 이미콘텐츠**  
기획 다큐멘터리. 대한민국, 최동북단을 가다  
이미플리: 가을편. 흰수염고래
- 36 ARMY LAB**  
더 부드럽게 더 자유롭게! 로봇, 인간의 한계를 확장하다!
- 38 아미오브박스**  
『사이버전 101』
- 40 예비역 광장**
- 42 독자의견**



# 공감과 소통으로 공간 혁신, '공간력'으로 '전투력' 향상!

## 제52보병사단, '공간력'으로 병영 문화 혁신 주도

잘 설계된 공간은 구성원들의 업무 효율과 동기 부여를 높이고,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조직과 전투력의 근간이 되는 핵심 요소, 즉 '공간력'이 된다. 육군 제52보병사단은 이 '공간력'을 전투력 창출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여, 건축물과 공간 혁신을 통해 장병들의 삶의 질과 체력, 집중력을 높이고 사기를 증진하여 전투력을 향상하고 있다.

글 | 송지유 작가 사진 | 조용학 기자(국방일보)

### 공간을 넘어 지속 가능한 혁신

“우리가 공간을 만들고, 그 후 공간이 우리를 만든다.” 1943년 10월, 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의 폭격으로 파괴된 영국 하원 의사당을 재건하며 윈스턴 처칠 총리가 남긴 말이다. 이는 '공간력'이 건축물과 공간을 넘어 국가와 사회의 정신을 형성하며, 인간의 행동과 문화, 사고 방식까지 지배하는 강력한 힘이라는 통찰을 담고 있다.

육군이 최근 '공간력(空間力)'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군에서 '공간력'은 부대의 가치와 정신, 구성원들의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전투력 향상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제52보병사단(이하 52사단)은 '공간력'을 전투력 창출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부대 전반에 걸쳐 공간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장병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이올러 근무 환경 전반으로 혁신이 확대되었다. 사단 직할대 당직 근무는 통합 근무로 조정되어 근무 인원 및 휴일 근무시간이 절반으로 줄었다. 부서별 워크숍 정례화, 전 간부 체육대회 등 조직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며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문화 정착에도 힘쓰고 있다.

제공하는 것이 '수도서울 절대사수'라는 52사단의 핵심 임무 완수에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지속 가능한 변화를 목표로 공간 혁신을 창출하고 있다.

### 구성원 의견 수렴 공간 개선

52사단은 '사용자 눈높이와 민간 수준에 맞춘 세련된 개선, 외부인에게도 손색없는 주거시설 개선, 상급부대 예산 집행 상황 확인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 확보 및 집행, 근무 환경 변화 즉각 체감, 부대원 및 가족 모두의 소통과 공감'을 기준으로, 다양한 공간 개선 및 공간력 창출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먼저, 일과 휴식이 조화되는 실내 공간을 조성하였다. 전 간부 1인 1PC와 파티션으로 개인 업무공간 확보, 자기 계발과 소통의 장이 된 휴게실과 스터디카페 형태로 변모한 병영 도서관, 부대·부서·가족 단위로도 사진 촬영이 가능한 사단 스튜디오가 마련되었다.

장병들의 체력단련 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여단급 이상 주둔지에 인조잔디 테니스장과 사단 및 예하 여단의 인조잔디 연병장 조성, 지자체와 협력해 '민·군 통합형 연병장' 조성을 추진하는 곳도 있다. 또한, 실내 체력단련장은 통합 확장 후 최신 장비로 구비되었으며, 노후된 실내 체육관은 동아리 활동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으로 개선되었다.

또한, 노후 공간의 안전과 쾌적성도 크게 향상되었다. 미관과 안전에 문제를 야기하던 컨테이너는 도시지역작전 훈련장으로 재배치되었고, 비만 오면 물웅덩이가 되던 여단 수송부는 파쇄석 설치와 배수 개선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특히 장병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주거 공간 개선이 이루어졌다. 군 숙소 리모델링을 위해 사단장이 직접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사 상황 수시 점검 등으로 만족도를 높였다. 숙소 외부 도색, 놀이터 설치 등으로 관사는 온 가족이 '살고 싶은 공간'으로 바뀌었다.

공간 혁신으로 근무여건 개선과 복무 만족도 향상 52사단의 이같은 공간 혁신 노력은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사단 내 사고 발생 및 민원 건수가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임기제 부사관 지원율 증가로 '육군 인력획득 우수부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부대원 설문조사에서는 '지위나 계급을 막론하고 상호 소통이 원활한 부대'라는 인식과 함께 근무 환경 및 주거 만족도 향상이 확인되었다. 이제 부대원들은 스스로 공간력 창출 아이디어를 적극 제안하며 능동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우현(소장) 제52보병사단장은 “공간력의 성과는 장성급 지휘관의 권한과 능력 발휘, 전 부대원과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하며, “업무·생활 공간이 좋고 편해야 능률이 오르고 부대 애착심도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사단은 앞으로도 공간력 창출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다.

한편, 육군본부에는 모든 부대의 공간력 혁신을 위해 지난 9월 '창끝부대 공간력 혁신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였다. 현재 총 7곳의 시범부대에서 공간력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며, 점차 확대하여 각 부대의 전투력 증진과 장병들의 복무 환경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01 인조잔디와 육상 트랙이 조성된 연병장에서 땀결음을 하고 있는 제52보병사단 기동대대 장병들

02 제52보병사단 기동대대 장병들이 병영도서관에서 독서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정밀함과 담대함으로 하늘을 가르다

## 제47회 특수전사령관배 고공강하 경연대회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특전요원들의 침투 능력과 공중 기동 기술이 정면으로 겨뤄졌다.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는 지난 11월 3일부터 11일까지 '제47회 특수전사령관배 고공강하 경연대회'를 개최해 정밀강하·상호활동·전술고공강하 등 고난도 종목을 실전처럼 수행했다. 대회는 '정확한 침투와 완벽한 임무 수행력'이라는 특수전의 본질을 확인하는 자리로, 특전사 예하부대는 물론 해군·공군 대표팀, 민간 7개 팀 등 총 29개 팀 150여 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의 규모로 치러졌다.

글 | 원정연 사무관 사진 | 대위 이한별, 정승익 주무관



하늘에서의 '1cm 싸움', 완벽한 착지를 향해 11월 5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 상공 4,000피트 UH-60 블랙호크 헬기가 선회하자 낙하산들이 하늘로 흩어졌다. 정밀강하 종목 참가자들은 바람의 흐름과 하강 속도를 읽으며 목표 지점을 향해 부유하듯

접근했다. 지름 2cm의 중앙지점에서 1cm만 벗어나도 감점되는 까다로운 규칙 속에서 낙하산 줄을 당기는 작은 동작 하나에도 집중이 실렸다. 특전사 인사처 인사근무과장 이대왕 중령은 "정밀강하는 실제 작전에서 목표지역에 얼마나 정확하게 침

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종목"이며 "8라운드의 점수를 합산해 개인·단체 우승자를 가리고, 1cm 오차가 작전 성공과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공중에서 팀워크를 평가하는 '상호활동' 종목에서도 참가자들의 기량이 유감없이 발휘됐다. 9,000피트 상공에서 네 명이 자유낙하하며 만들어 내는 공중대형은 정확한 동작과 호흡이 필수다. 이를 촬영하는 카메라 플라이어의 영상은 심판진이 동작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핵심 자료가 됐다.

올해 처음 도입된 '전술고공강하'는 더욱 실전적이었다. 5인 1조가 계획 수립부터 항공기 이탈, 낙하, 착륙, 재집결지 점령까지 전 과정에서 전시 임무 수행 능력을 검증받았다. 이대왕 중령은 "고공침투 교리에 기반한 평가로 공중침투기술 향상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기술을 넘어 '집중력'과 '생존'의 싸움

대회장을 찾은 특전사 정재현 상사는 정밀강하와 상호활동 두 종목에 참가했다. 그는 "정밀강하는 모든 조종이 정밀해야 해서 매일 터치훈련과 지상자세 훈련을 반복했다."며 "상호활동은 네 명의 움직임이 완전히 맞아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새벽·야간을 가리지 않고 팀워크를 다졌다."고 말했다.

대회 현장 분위기도 인상적이었다. 정 상사는 "민간에 개방된 장소라 시민들의 응원을 바로 들을 수 있어 힘이 났다."며 "날씨가 너무 좋아 기분 좋은 상태로 강하에 임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바람의 영향을 대비해 다양한 우발 상황을 이미지 트레이닝

으로 준비했다며 "어떤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전했다.

민간 팀 참가자인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 함성주 회장도 이번 대회를 특별한 경험으로 꼽았다.

"민간인이 군용 헬기를 타고 강하하는 것은 이 대회가 유일합니다. 팀원들과 호주 전지훈련까지 다녀오며 준비했고, 상호활동 부문 우승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 47년의 역사,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한

#### 특전사의 공중침투 능력

특수전사령관배 고공강하 경연대회는 1977년 시작된 이래 특전사의 공중침투 능력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축이 되어 왔다. 지난해 국제군인체육연맹(CISM) 대회에서는 여군 팀이 3연패를 달성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남군·여군 모두 종합 준우승을 차지했다.

올해 대회에서는 정밀강하 개인전 1위 특전사 비호부대 이용우 원사, 단체전 1위 비호부대, 상호활동 부문 1위 알파다크호스팀, 전술고공강하 1위 천마부대가 영예를 안았다.

이대왕 중령은 "민·관·군이 함께 기술을 교류하며 특전요원들의 정밀강하·침투 능력을 더욱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며 "항공스포츠 저변 확대와 대군 신뢰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늘 위에서의 1cm 싸움. 그 정밀함과 담대함이 특전요원들의 생명력이다. 실전 같은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 특수전의 수준과 미래를 다시 한번 입증한 시간이 되었다.

01  
제47회 특수전사령관배 고공강하 경연대회에 참가한 장병들이 블랙호크에 탑승하고 있다.

02  
정밀강하 종목에 참가한 장병이 착지판에 정확하게 안착하고 있다.



# 조국 수호의 다짐, 전선을 밝히는 송구영신(送舊迎新)

## 최북단 제22보병사단 고향봉대대 장병들의 2025 송년인사

2025년의 마무리를 앞둔 12월, 대한민국 최북단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고향봉대대 장병들이 송년 인사를 전한다. 혹독한 추위와 긴장의 연속 속에서도 묵묵히 조국을 수호하는 이들의 헌신적인 노고와 확고한 안보 의지는 깊은 감동과 울림을 선사한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그 숭고한 임무 수행을 흔들림없이 이어가겠다는 장병들의 다짐도 함께 담았다.

글 | 송지유 작가 사진 | 류승지 주무관

원사 조경호



### ‘수사불패’와 ‘울곡지훈’의 정신으로 임무 수행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국의 마지막 철책선을 굳건히 지키는 고향봉대대의 주임원사로서 부서관 중심의 전투준비태세를 확립하고, 장병들이 조직의 신뢰와 단결을 바탕으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독려합니다. 혹한의 바람이 몰아치는 철책선 위에서도 우리 장병들은 ‘수사불패(雖死不敗: 비록 죽을지언정 결코 패하지 않는다)’와 ‘울곡지훈(栗谷之魂: 이것이 바로 울곡의 혼이다)’의 정신으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을 맞아 후배 부서관들과 장병들에게 ‘변화 속에서도 초심을 잃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 ‘수사불패’의 정신으로 모든 전우를 끝까지 지켜내며, 언제나 믿음직한 선배로 남겠습니다.

소령 이규민



### ‘해현경장(解弦更張)’의 정신으로 완전작전!

충성!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산악 및 해안 경계를 동시에 책임지는 최전선에서, 오직 조국 수호의 일념으로 정보과장의 임무를 수행하며 GOP 경계작전에 임하고 있습니다. 2025년을 산과 바다가 맞닿은 그 엄중한 경계에서 최고의 전우들과 함께 보낸 것은 큰 영광이었습니다. 새해에도 ‘해현경장(解弦更張)’의 고사처럼, 반복되는 경계의 일상 속에서도 거문고 줄을 새로 고쳐 매듯 매일 초심을 다지며 완전 작전과 완벽 경계에 임하겠습니다. 희망찬 병오년(丙午年) 새해, 붉은 말처럼 힘찬 기운이 가득하고 건강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병장 정은세(좌)



### 적은 언제나 내 앞에 있다!

금강산과 동해안이 맞닿은 대한민국 최북단, 저는 적 도발 시 가장 먼저 대응하는 핵심 경계 부대의 최전방 경계병으로서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한 빈틈없는 경계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전방 GOP에서 나라를 지키는 것은 제게 크나큰 자부심이며, 2025년에도 전우들과 함께 모든 경계작전에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며 임했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굳건히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을 지켜온 선배 전우들의 숭고한 정신과 이 전선 최북단을 함께 지키는 전우들의 헌신 덕분이라 믿습니다. 전역하는 그날까지 ‘적은 언제나 내 앞에 있다’는 굳건한 마음가짐으로, 국가 안보를 위한 완전작전에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임하겠습니다.

대위 지윤범(좌)



### 적이 오지 않음이 아니라, 내가 대비됐음을 믿다

충성! 대한민국 최북단, 단 한 뼘의 땅도 허락지 않는 이곳에서 ‘무시기불래 시오유이대야(無恃基不來 恃吾有以待也: 적이 오지 않음을 믿지 말고, 내가 대비됐음을 믿으라)’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GOP대대 중대장으로서 ‘완전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저와 동료들은 살을 찢는 추위와 녹아내리는 더위 등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굳건히 전선을 지킴으로써, 국민들께서 평온한 밤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에 크나큰 보람을 느낍니다. 지난 해 뜨거운 전우애로 다진 유대감과 함께한 성장을 동력 삼아, 2026년에도 선배 전우들의 숭고한 뜻을 계승하며 국가 안보의 중추로서 빈틈 없는 경계작전을 완벽히 수행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건영 주무관(군수지원대대)



### 감시 장비 정비로 ‘완전경계작전 지원’

강원도 고성부터 양양까지 뻗어있는 제22보병사단 전 전선의 TOD(열상감시장비) 정비 업무를 담당하며, 완전경계작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비 업무의 특성상 전방과 해안 곳곳을 누비며 늘 새로운 만남과 상황에 직면하는 것은 마치 미지의 모험과 같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두근거리는 TOD 정비 임무는 이미 제 삶의 큰 축을 이루고 있으며, 제 손에서 첨단 감시 장비들이 최상의 성능을 유지하여 전방의 눈과 귀가 될 때, 국방 임무의 핵심 일원으로서 깊은 자부심을 느낍니다. 어느덧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2025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에는 더욱 풍성하고 가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 '위대한 헌신, 영원히 가슴에' 새긴 '약속의 축제', K-밀리터리 페스티벌 '춘천대첩'

## 육군 제2군단, 춘천지구전투 75주년 전승행사 성료

육군 제2군단이 'K-밀리터리 페스티벌 『춘천대첩』'을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대한민국 수호의 전환점이 된 춘천대첩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과 함께 되새기고,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와 예우를 전하는 축제형 보훈행사였다. 나아가 우리의 평화가 호국영령의 희생 위에 세워졌음을 기억하고 조국 수호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굳건한 약속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글 | 송지유 작가 사진 | 윤대진 작가



춘천지구전투의 위대한 승리, 축제로 울려 퍼지다  
1950년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춘천 옥산포, 소양강, 봉의산 일대에서는 민·관·군이 혼연일체로 맞서 싸워 북한군의 남하를 격퇴 및 3일간 지연시켰다. 바로 '춘천대첩'으로 불리며 6·25전쟁 개전 초기의 판도를 바꾼 춘천지구전투이다. 당시 국군의 한강방어선 구축

과 UN군의 참전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그 희생과 헌신은, 75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대한민국을 있게 한 '구국의 전투'로 평가받는다.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육군 제2군단이 춘천지구전투 75주년과 승전을 기념하며 'K-밀리터리 페스티벌 『춘천대첩』' 전승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했다. '위대한 헌신, 영원히 가슴에'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당시 목숨을 바쳐 싸운 국군 장병 및 춘천 시민, 학생, 경찰 등 호국영령 참전용사들의 희생에 감사하고자 마련된 이 행사는 시민참여형 축제형 보훈행사로 기획되었다. 아울러 행사를 통해 군 문화를 대중화하고 젊은 세대에게 춘천지구전투의 전승이 과거의 역사를 넘어 '자신이 지켜야 할 가치와 책임'임을 각인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10월 31일 오후, K-밀리터리 페스티벌 '춘천대첩'은 2군단 군악대의 '전승기념 군악연주회'와 춘천 밤하늘을 수놓은 화려한 드론 라이트 쇼와 함께 시작되었다. 이어서 11월 1일에는 춘천대첩 전승기념 및 고(故) 심일 소령 추모행사, 그리고 6·25전쟁 참전용사 위로연을 통해 진행하였다. 특히, 초청된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헌신에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춘천지구전투에서 활약한 전쟁영웅을 기리는 '전쟁영웅상 수여식'도 함께 진행되었으며, 7사단 김승률 대위 등 2명이 김종오 상을 수상하였다.

전승행사에는 육군 제2군단장 박후성 중장과 지역 내 군 주요 지휘관을 비롯한 지역 기관장, 6·25전쟁 참전용사, 시민, 장병 등이 참석하며 민·관·군 화합의 장이 되었다.

###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호국 의식 함양

수변공원에서 펼쳐진 축하공연에서는 춘천시립합창단과 국악단의 공연을 비롯해 육군 의장대의 의장 시범, 육군항공 축하비행, 육군 태권도 시범단의 역동적인 무대가 이어져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또한, 시로 복원된 전쟁영웅 영상 상영, VR 드로잉 퍼포먼스, 드론쇼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며 세대 간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한편, 행사장 주변에서는 다양한 홍보체험 부스가 운영되었다. 헬기 탑승 체험, 전술 차량 및 산악 바이크 탑승, 문교체험 등 행사 기간 내내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으며, 시민들은 첨단 과학기술과 결합하여 강한 전투력으로 무장한 육군의 위용에 놀라움과 더불어 대한민국을 굳건히 수호하는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노력은 빛나는 성과로 이어졌다. 행사 기간 동안 역대 최대 관람객인 3만 명이 방문하며 '시민참여형 축제형 보훈행사'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전쟁영웅 복원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호국 의식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다양하고 생동감 있는 콘텐츠를 통해 군 문화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와 시민과 소통하는 축제를 이루어냈고, 장병들에게는 자긍심과 보람을 안겨 주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전승행사 TF장 정철희 소령은 "젊은 장병들이 풍전 등화의 위기에 있던 대한민국을 지켜낸 호국영령과 선배 전우의 승리 정신을 이어받아 안보의식을 굳건히 다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이번 전승행사가 단순한 기념을 넘어 우리의 평화는 호국영령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약속의 자리'였음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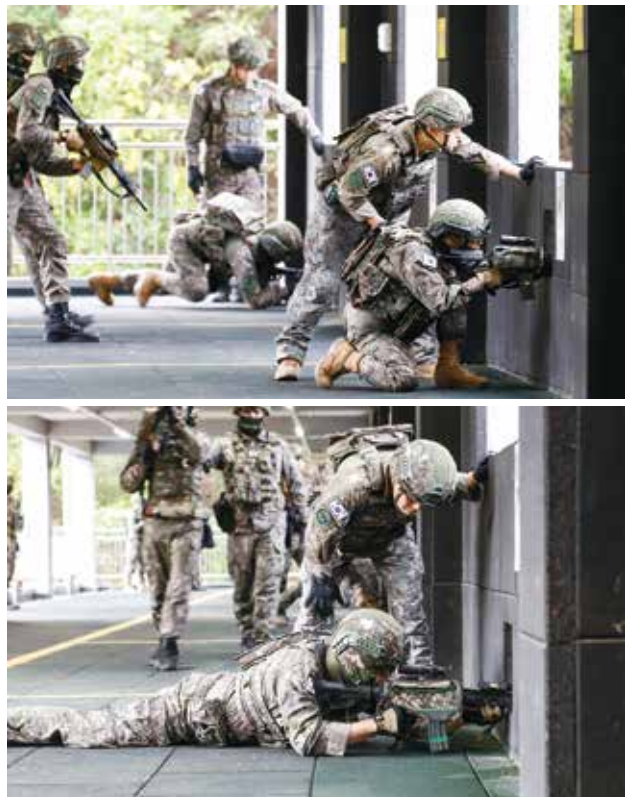
2군단은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호국의 가치를 이어가며, 더욱 강하고 신뢰받는 군으로서 조국 수호의 사명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하였다.

01 2군단 장병들이 K-밀리터리 페스티벌 '춘천대첩'에서 공중 격파시범을 보이고 있다.

02 공연 간 방문객들로부터 깊은 공감대를 이끌어 낸 시로 복원된 전쟁영웅 영상

제2작전사령부

도시지역작전 전투사격팀 선발대회



제2작전사령부는 도시지역작전 수행능력 강화와 팀 단위 전투능력 배양을 위해 지난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50사단 강철사격장에서 '무열 최정예 도시지역작전 전투사격팀' 선발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후방지역작전 및 현대전의 특성상 도심지 내 주요 시설을 중심으로 근거리 전투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2작전사는 도시지역작전 수행능력 강화를 위해 '23년 '도시지역작전 훈련지침서'를 발간하고, 지하공동구 훈련방안을 재정립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도시지역작전 전투기술 교관 집체교육, 신형 마일즈 장비를 활용한 쌍방훈련 등 도시전장 중심의 실전형 훈련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글 | 허나희 주무관 사진 | 심상은 주무관

제3보병사단

전시 대비 야전 부식분배 훈련



제3보병사단은 10월 22일, 전시 및 재난 상황 등 우발상황에서도 완전한 부식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야전 부식분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군과 민간요소가 통합된 훈련으로 준비해 전시 부식분배 및 수령 절차 숙달, 현장 위생관리, 식중독 예방 활동에 중점을 두고 실제 작전환경과 유사한 상황을 가정해 시행함으로써 사단의 전시 보급지원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증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약 7,000여 명이 취식할 부식을 26개 부대에 분배했으며, 24대의 차량을 투입해 각 부대까지 안전하게 수송했습니다. 특히 제한된 공간에서 정해진 시간 내 임무를 완수함으로써 전시를 포함한 열악한 여건에서도 부식을 안정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역량을 쌓았습니다.

글 | 대위(진) 백지연 사진 | 상사 이도선

제9보병사단

'Shoot & Scoot' 박격포 사격 훈련



제9보병사단은 보병부대의 전투력 및 생존성 보장을 위해 10월 28일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일대에서 전군 최초 '사격 후 진지변환(Shoot & Scoot)' 전술을 적용한 박격포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은 Shoot & Scoot 전술 숙달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최초 사격 진지에 사격 후, 적의 대응 사격을 피해 차후 사격을 위한 새로운 사격 진지로 즉시 이동하여 원거리 조준점에 의해 신속하게 박격포 방열을 준비하는 행동화 훈련에 집중했습니다.

사단은 전투원의 생존성 보장을 위해 실전적 훈련에 매진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작전환경과 전장 구도에 따라 다양한 전투수행 방안을 연구하여 전투력 완비에 매진할 방침입니다.

글 | 대위 황지연 사진 | 여주미 주무관

제28보병사단

무적태풍 정신담은 역사 계승 공간 조성



제28보병사단은 지난 11월 18일 창설 72주년을 맞아 부대정신과 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역사 계승 공간을 공개했습니다. 사령부 내에 조성된 역사관·태풍동산·추모공원은 부대의 창설부터 주요 작전과 활동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 공간으로, 장병과 지역 주민이 함께 부대의 발자취를 되새길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특히 태풍동산에는 각종 전적비와 기념비가 모여 사단의 명예와 전통을 상징하며, 추모공원은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리는 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제28보병사단장(소장 이종현)은 "역사계승 공간에 깃든 선배전우들의 혼과 부대정신을 이어받아 자랑스러운 무적태풍의 긍지를 지켜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글 | 중위 정동영 사진 | 중사 김진식

제35보병사단

백마여단 급속헬기로프 강하훈련



제35보병사단 예하 백마여단은 10월 29일, 지역방위의 실질적 임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급속헬기로프 강하(패스트로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백마여단 기동중대 장병 4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훈련은 기초 자세 유지, 장비 착용법, 하강 전 안전점검 절차 등을 반복 숙달하면서 개개인의 숙련도에 따라 개별 피드백 및 평가를 병행했습니다. 특히 장병들은 실제 헬기 자산을 활용한 급속헬기로프 강하 전 모형탑 강하 숙달훈련을 통해 장비착용부터 하강 중 제동·착지 동작까지의 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숙달함으로써 작전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글·사진 | 대위 박석준

제72보병사단

저고도 위협 대비 실대공사격 훈련



제72보병사단은 지난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간, 마차진 사격장에서 발칸 대공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동원전력사령부 창설 이래 최초로 시행된 실대공사격 훈련으로, 부대의 실전 운용 능력과 저고도 공중 위협 대응태세를 종합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훈련은 실전 상황을 가정하여 실제 작전적 절차에 따라 표적 포착 - 조준 - 격발 - 사후 평가의 전 과정을 반복 수행하며, 실시간 상황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시행했습니다. 부대는 정기적인 실사격 훈련을 확대해 실전 중심의 방공 전력 운용 역량을 갖추고 전투 숙련도를 강화하며, 유사시 즉각적인 영공 대응 능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글 | 대위 성두원 사진 | 전민수 주무관

수도기계화보병사단

美299공병대대와 연합훈련



수도기계화보병사단(이하 수기사) 공병대대는 美2사단/한미연합사단 예하 299공병대대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간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원평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공병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한미가 함께 연합 공병부대를 편성하여 연합 공병작전 수행능력을 높이고, 다양한 공병지원 노하우를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수기사 공병대대 1중대와 美2사단/한미연합사단 299공병대대 1개 소대 등 한미 장병 100여 명과 K600 장애물개척전차, 교량전차(AVLB), K200A1 장갑차, 美 스트라이커 장갑차-지뢰지대 통로개척장비(이하 미클릭·MICLIC) 등 장비 40여 대가 투입됐습니다.

글 | 대위 김태은 사진 | 강현아 주무관

육군본부

2025 육군 모범부사관 시상식 개최



육군은 지난 10월 27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호텔에서 김규하 육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2025년 육군 모범부사관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육군 모범부사관' 제도는 2013년 부사관의 전사적 기풍 확산과 사기 진작을 위해 제정됐으며, 지난해까지 총 146명의 원사·상사가 선발됐습니다. 13회째인 올해는 '강한 육군, 신뢰받는 육군' 구현에 헌신한 전투전문가 20명이 각 부대 추천과 육군본부 심의를 거쳐 선정되었습니다. 시상식에는 수상자와 가족 등 90여 명이 참석했으며,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상금, 로카우스호텔 숙박권, 서울 투어 등 부상이 수여됐습니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부사관들이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받는 가운데 자부심을 갖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복무여건 개선과 제도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글 | 소령 김정희 사진 | 우태경 주무관

최정예 300 전투원  
폭발물처리팀

# 2군수지원여단 탄약대대

사진 | 임동빈 주무관

(좌측부터) 준위 조태성, 중사 류성우, 상사 권상연



# 사선을 함께 넘은 한미 협력의 산증인, 최초의 카투사

## 6·25참전유공자회 대구광역시 남구지회 류영봉 지회장

열아홉 살에 등굣길 징집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카투사 중 한 명이 된 류영봉 용. 미 육군 제7보병사단 위생병으로 인천상륙작전부터 압록강 복진, 장진호 사투, 흥남 철수까지 겪었다. 치열한 고지전으로 전황이 바뀐 이후에도 철의 삼각지대, 백마고지 등 주요 격전을 미군과 함께하며 온몸으로 겪어낸 그는 그들의 도움에 대한 깊은 감사와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글 | 송지유 작가 사진 | 원정연 사무관

### 최초의 카투사 징집, 기적 같은 상봉

1950년 여름, 6·25전쟁의 포화는 모든 이들의 일상을 집어삼켰다. 대구의 평범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던 류영봉 용(94세)에게도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8월 16일, 학교로 향하던 그는 거리에서 경찰관에게 이끌려 트럭에 올라탔다. 당시 미군 부대의 병력 부족과 혼란을 해결하고자 출병한 미군 배속 한국군 '카투사(KATUSA)'의 본격적인 시작이었다.

"8월 15일과 16일 이틀간 징집된 2천 명이 최초의 카투사로서 배속되었어요. 우리는 부산에서 배를 타고 일본 요코하마를 거쳐 후지산 인근 미 육군 제7보병사단 캠프에 도착해 그곳에서 3주간 훈련을 받았어요. 대부분 영어를 못해서 고생했지만, 저는 의사였던 큰 형님의 조언으로 익혔던 영어 실력 덕분에 임시 통역 및 조교 역할을 수행했어요. 위생병으로 배치되어 환자 처치 등 기초 의료 교육도 받았고요."

한국으로 돌아온 카투사 병력은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2차 병력으로 참전하였다. 미 육군 제7보병사단 17연대 1대대 위생병이던 류영봉 용도 보병부대 뒤를 따르며 인천에 상륙 후, 서울을 거쳐 북한군 잔여 병력 소탕 작전에 나섰다. 특히 안양 전투에서는 격렬한 전투를 치르며 수많은 부상병들이 발생했고, 총상, 수류탄 파편 등으로 다친 환자들을 들것에 싣고 후송

하며 전우들을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 이후 부대는 제천, 영천 등을 거쳐 대구로 향했다.

"1950년 10월 26일 아침 7시에 대구역에 내렸는데 광장에서 홀로 서성이는 아낙네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어머니!' 하고 불렀죠. 하지만 어머니는 돌레돌레 찾으면서도 미군과 섞여서 철모를 쓰고 총을 멘 군인 복장인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철모를 벗고 '어머니 막내입니다'라며 다가서니까 '이제 찾았구나!'라며 통곡을 하셨어요."

두달 반 동안 매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들을 찾아 곳곳을 헤매셨던 어머니는, 그날도 정처없이 발걸음을 향했다가 뜻밖의 재회를 하게 된 것이었다.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간절한 정성이 불러온 기적 같은 상봉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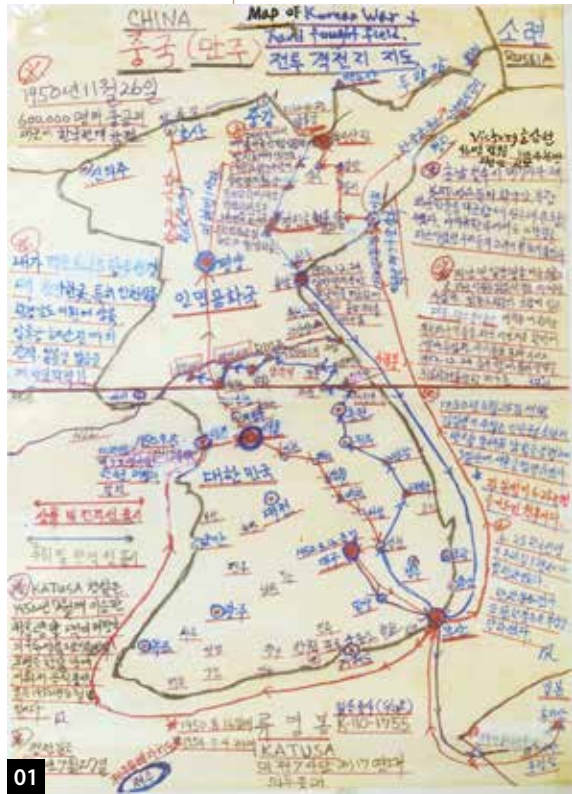
### 압록강 변에서의 후퇴, 장진호에서의 사투

1950년 11월 20일, 유엔군이 파죽지세로 진격하여 압록강 변 해산진에 당도하자 모두 환희에 젖었다.

"다들 이제 통일이 된다고 환호하며 공공 언 압록강 얼음을 깨어 씹어 먹으며 감격했고, 미군 병사들도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주민들도 저희를 환영했구요."

그러나 부푼 꿈은 불과 3일 만에 산산이 부서졌다. 압





록강을 넘어온 대규모 중공군의 개입으로 유엔군은 순식간에 포위되었고, 북진하던 길은 생사를 건 퇴로로 변모하였다. 혹독한 추위와 중공군의 포위망 속에서 탈출할 길이 막혔고, 북한 주민들이 일제 강점기에 광물과 물자를 수송하던 케이블카 시설을 가동시켜 주어 겨우 산악을 넘어 탈출하는가 싶었다.

하지만 안도할 틈도 없이, 장진호 전투의 한복판에 떨어지게 되었다. 미 해병 제1사단이 장진호 북방으로 진출하던 중 중공군에 포위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미 7사단 병력도 장진호에서 고립되고 만 것이다. 총 3만 명에 불과한 아군 병력은 중공군 12개 사단 병력에 맞서야 하는 상황이었다.

중공군은 낮에는 유엔군의 공중 폭격을 피해 숨었다가 밤에만 파상 공격을 펼쳤다. 중공군이 퇴로를 끊기 위해 황초령 다리를 폭파시켜 고립은 더욱 깊어졌다. 고립되다 보니 며칠씩 굶주림에 시달리고 밤이면 중공군의 공격에 시달리던 상황에서, 특히 영하 30~40도까지 떨어지는 극한의 추위는 강력한 적이었다. 따뜻한 지역 출신이 많았던 미군은 동상 환자가 속출했고, 부상당한 병사들은 영하의 밤을 견디지 못하고 다음 날 아침 얼어붙은 시신으로 발견되는 경

우가 허다했다. “부상자를 처치하다가 중공군이 공격해 오면 치료를 마치지 못하고 후퇴를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한 명이라도 더 치료를 하려다가 군의관이 끌어내다시피 한 적도 있는데, 이튿날 가보니 다 죽어있었어요. 저도 그때 군의관 아니었으면 살아있지 못했을 겁니다.” 공병대가 비행기로 투하된 물품을 가지고 다리를 재가설하여 2주 만에 겨우 장진호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 당시 장진호에서 유엔군 중 약 8천 명이 전사하거나 실종 및 부상당했고, 카투사도 크나큰 희생을 감수하였다. “미군은 이 전투에서 카투사들이 보여준 희생과 활약을 높이 평가했고, 이는 당초 1년 6개월로 예정되었던 카투사의 운용 기간이 휴전 이후에도 계속 존속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기적 같은 흥남철수와 격전의 고지전**

장진호의 처절한 격전을 뚫고 마침내 흥남 부두에 도착한 이들이 맞닥뜨린 것은 수십만 명의 피난민 인파였다. 병력 수송만으로도 부족한 배에 여유는 없었지만, 미 10군단장 에드워드 알몬드 소장은 전쟁 물자를 모두 배에서 내리고 10만여 명의 피난민을 태워 구출하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린다. 이때 기적의 배로



불리는 메러디스 빅토리호는 60명의 정원을 넘어 1만 4천 명을 태워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 류영봉 공 부대는 3일간 한 명이라도 더 태우기 위한 필사의 노력으로 피난민 승선을 도왔고, 부두에 남겨진 물자를 폭파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흥남을 떠났다. 부산에 도착 후 영천으로 이동해 전열을 기다듬은 부대는 태백산 전투를 시작으로 다시 복진 작전에 투입되었다. 이어서 가철봉, 김일성 고지, 철의 삼각지, 편치봉, 백마고지에 이르는 수많은 고지전에 참전하며 전쟁의 가장 격렬한 순간들을 온몸으로 겪어냈다. 특히 백마고지에서는 부상자 이동 중 잠시 쉬려던 차에 위험을 예감하고 자리를 옮겨 화를 피한 덕분에 표창을 받기도 하는 등 여러 차례 죽음의 위기를 넘기며 휴전까지 미 7사단 소속으로 전장을 지켰다. 휴전 후에는 통역관 시험에 합격해 미군에 남으려 했다. 하지만 참전했던 삼형제 중 세 살 위 형은 전사하고, 열두 살 위 형은 심한 부상을 당하여 홀로 계신 어머니를 모실 사람이 없다는 비보를 접하고, 1954년 7월 4일 전역하였다. 이후 군 복무 중 익힌 영어 실력이 기반이 되어 대구의 미군 부대 병원 응급실에서 46년간 근무하며, 전쟁으로 맺어진 미군과의 깊은 인연을 평생토록 이어나갔다.

**전장을 넘어선 우정, 영원한 호국의 메시지**  
한편, 전쟁은 류영봉 공에게 특별한 인연을 남겼으니, 그의 상사이자 미군 군의관이었던 ‘에드워드 가이’였다. 에드워드는 그를 친동생처럼 아껴주었으며, 장진

호 전투 당시 그를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다. 류영봉 공도 보급이 끊겨 굶주림에 허덕이던 때에 감자와 옥수수를 구해 에드워드를 돕는 전우애를 나누었다. 전후 에드워드는 그에게 미국에서 의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하였지만, 어머니를 모셔야 했던 류 공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이후 수십 년이 지난 2011년, 류영봉 공은 SBS 방송국의 주선으로 에드워드 가이와 극적인 재회를 가졌다. 추억을 되새기며 서로를 부둥켜안은 두 노병의 모습은 전쟁의 상흔 속에서도 피어난 우정을 보여주었고, 그들의 재회는 현충일에 방영되며 큰 감동을 선사했다. “젊은 나이에 꽃봉오리도 채 피우지 못하고 일찍 떠난 전우들에게 미안하죠. 포탄 소리와 쓰러진 전우들의 모습은 늘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함께 싸웠던 미군과 유엔군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적화되고, 오늘날의 변명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자주국방의 힘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치료 임무를 수행하며 격전의 전장을 지켰던 류영봉 공은 여전히 전쟁의 상흔을 품고 산다. 먼저 떠난 전우들에게 과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그의 바람은,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며 우리가 이 역사를 왜 기억하고 계승해야 하는지 가슴 깊이 새기게 한다.



- 01** 류영봉 공이 참전했던 전투와 경로를 표기해 직접 만든 ‘전투 격전지 지도’
- 02** 1952년 6월, 중부전선에서 함께 카투사로 복무했던 류영봉 공(우)과 전우 서재용 씨
- 03** 치열했던 전장을 떠올리며 먼저 떠난 전우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되새기는 류영봉 공
- 04** 1951년 2월, 인제 가철봉의 진료소 앞에서 미 군의관 에드워드 가이와 함께한 기념사진



## "준비, 싸!" 초탄명중으로 기선을 제압하고 전장을 흔드는 견인포반

육군 제72보병사단 516포병대대  
최정예 견인포반

2019년 105mm에서 KH-179 155mm 견인곡사포로 장비 전력화를 완벽하게 완료하며 더욱 강력한 화력으로 무장한 제72보병사단 516포병대대. 육군 최고의 견인포반을 가르는 '2024 최정예 300 포술경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부대 2연패 달성의 주인공이 됐다. '전투에 완벽하고, 전우에 충실하며, 조국을 위해!'라는 부대 슬로건을 더욱 빛내며 '전투준비태세 완비'를 입증한 최정예 견인포반을 만났다.

글 | 이지연 작가 사진 | 김승호 작가

###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516포병대대 최정예 견인포반이 운용하는 화기는 'KH-179 155mm 곡사포(이하 KH-179)'다. KH는 한국형 곡사포라는 뜻의 'Korea Howitzer', 숫자 1은 '국내 최초'를 의미하며 79는 개발 착수 연도를 뜻한다. KH-179는 개발 이듬해인 1983년부터 대한민국 포병의 역사를 함께해 온 주력 견인포로 전방에 배치된 아군 부대를 화력으로 지원해 적의 핵심 표적을 격멸함으로써 아군의 작전을 성공으로 이끈다. 고폭탄 기준 최대 18km까지 타격 가능하며, 정확하고 파괴력 있는 화력을 투사할 수 있다. 게다가 로켓보조추진탄(RAPT) 사용 시 30km까지도 타격이 가능한 전천후 무기체계로 기존 105mm에 비해 압도적인 사거리와 화력을 갖춰 부대 전투력을 한층 높였다.

견인포는 이름 그대로 목표지점까지 '견인(牽引)'하는 무기다. KH-179 견인포 역시, 목표지점까지 기동 차량에 견인된다. 견인포 무게만 약 7톤에 달해 견인 후 배치, 운용까지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KH-179 1대에는 포반장과 사수, 부사수, 1~10번 포수, 화포 운전병 등 총 14명이 편성된다. 포반장은 포반의 모든 작전을 지휘하는 총책임자이고, 사수는 하달된 편각에 맞춰 포의 방향을 조작한다. 부사수는 하달된 사각에 맞춰 포의 높낮이를 조작하고 포수들은 화포의 방열, 포탄 운반 및 장약 장전, 방아곤을 활용한 사격까지 사전 분배된 임무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최종 사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견인포의 특성상, 운용을 위해 많은 인원이 필요함

01 포반장(상사 장윤규)이 훈련 전 사고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01

니다. 각자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해야만 한 몸처럼 화포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훈련과 숙달이 필요한 무기이기에 포반원들 간 끈끈한 유대감과 신뢰가 꼭 필요합니다."

포반장으로서 최정예 견인포반을 이끈 장윤규 상사는 "훈장처럼 박힌 군은살이 포병임을 증명한다."라고 포병의 자부심을 드러냈다.

### 실전적 훈련 통한 '동원즉응태세' 완비!

견인포반은 '전투적 완벽함'을 목표로 일과를 시작한다. 평시에는 아침 기상 및 점호 후 포대장에 의한 일과 분류, 포반장 통제에 따른 화포 일일 정비를 기본으로 실시하며, 포술 교육 및 숙달에 대부분 시간을 할애한다. 특히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KH-179는 신속한 방열, 사격준비, 포탄 장전 등 모든 과정을 몸이 기억할 때까지 반복 숙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과 후에는 전투 피로에 대한 회복시간, 자기계발, PX 사용, 축구 등을 통한 휴식과 소통의 시간을 가진다.

동원사단인 72사단은 동원령 선포 즉시 예비군과 즉각 완편되어 강력한 화력으로 신속하게 전투력을 발휘하는 최고의 동원즉응태세까지 갖추고 있다. 동원사단 특성상 예비군과 함께하는 동원훈련도 중요한 임무 중 하나다.

포반원들은 예비군이 단기간 교육훈련을 통해 현역과 함께 임무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준비를 철저히 한다. 3일의 동원훈련 종료 시점에는 현역과 예비군이 전우로 호흡을 맞춰 함께 포탄사격을 실시한다. 실전적 훈련을 통해 어떠한 위기상황에서도 신속, 정확한 팀워크로 화력을 지원할 동원즉응태세를 갖추기 위함이다.

"우리 부대의 임무가 '신속한 동원병력 전력화'를 통한 전방부대 화력지원입니다. 힘들고 고된 훈련을 통해 포를 신속·정확하게 방열하고 '준비, 싸!' 명령과 함께 포탄이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을 때 말할 수 없는 희열을 느낍니다. 특히 예비군 전우들과 땀 흘리며 완벽하게 전투태세를 완성했을 때 '우리가 곧 대한민국의 안보'라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우리가 땀 흘려 온 훈련들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것,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에 군인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최강 포병대대라는 자부심으로!**

516포병대대 견인포반원들은 지난해 최정예 300 포술경연대회에 참가해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평소 '동원사단 포병의 대표'라는 자부심을 안고, 평소 갈고 닦은 155mm 견인포 운용 전문성을 육군 전체에 입증하고 싶었다. 또 '불사조'라는 부대 이름에 걸맞게 최고의 팀워크와 포술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강한 의지도 있었다.

장윤규 상사를 필두로 '걸어다니는 노하우집'이라 불리는 김기호 예비역 상사(이하 김기호 상사)도 견인포반에 합류해 후배들과 호흡을 맞췄다. 2003년 육군 부사관이 된 김기호 상사는 '상비예비군 제도'에 따라 희망전역 후 다시 군과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상비예비군 제도는 예비역(장교, 부사관, 병) 중 희망자를 선발(단기·장기)해 평시에 소집·훈련시켜 전시

에 동일한 직책으로 동원, 즉시 임무수행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김기호 상사는 155mm, 105mm, K55 자주곡사포 등을 경험한 베테랑으로 2019년부터 516포병대대에서 단기 상비예비군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최정예 견인포반에 합류하며 장기 지원을 했다. 지난해부터 최정예에 상비예비군 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그간 다져온 노하우와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수하며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후배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포병 선배로서 20여 년 군에서 쌓은 포에 관한 노하우를 잘 전수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야겠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장윤규 상사가 포 앞에서 진두지휘할 때 김기호 상사는 포 뒤에서 후배들을 이끌었다. 포의 앞뒤를 든든히 받쳐준 두 사람이 있어 용사들도 흔들림 없이 각자 맡은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다.

최정예 대회 직전, 최정예 견인포반원들은 포를 방열하고 하달된 제원에 맞게 사격준비를 완료하는 주특기 훈련을 비롯해 체력, 사격, 전투부상자처치(TCCC) 등 개인전투능력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대대의 대회 준비를 물심양면 지원해주며, 출정식을 해주었던 부대 장병들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또 대회 중 체력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던 용사가 합성을 지르며 3km를 달려가는 모습에 아직도 가슴 한곳이 뭉클합니다. 이러한 모두의 노력과 응원 덕에 우승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 대대 전체의 자신감, 할 수 있다는 분위기, 하나라는 자부심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비록 그때 함께한 용사들은 전역했지만 그들의 열정을 뒤이을 후배 용사들이 '최정예 300 우승 부대원'이라는 소속감을 가지고 군생활에 임하고 있습니다. 최정예를 통해 516포병대대가 육군 최정예 견인포 부대임을 입증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이며, 앞으로도 최강 포병대대라는 자부심을 안고 임무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땀방울이 국가 안보를 지키는 주춧돌이다!**

장윤규 상사는 운전병으로 입대해 군생활을 시작했다. 운전병이었지만 포병의 핵심인 포탄사격 훈련을



05



06

02 KH-179 155mm 견인포를 방열하고 있는 한상준 상병과 오승택 상병

03 포반원들이 교육용 탄약을 운반하여 장전하고 있다.

04 전준혁 일병이 겨냥대로 방향포경을 조준하고 있다.

05 오승택 상병이 고저 전륜기를 돌려 사각을 맞추고 있다.

06 포반원들이 장전 완료 후 포반장(상사 장윤규) 통제로 비사격을 실시하고 있다.

진행하며 부사관의 임무와 역할에 반했다. 2016년, 멋진 포병 부사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싶다는 바람을 안고 부사관이 된 장 상사는 105mm, M114(155mm), KH-179(155mm)를 경험하며 다양한 포 운용 노하우를 쌓았다. 전포사격통제관으로서 선봉포대 달성, 중급반 우수자 수상에 이어 동원사단 임무에 맞게 완벽한 동원훈련 및 포탄사격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등 매 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 완수를 위해 전력을 다했다. 현재는 516포병대대에서 행정보급관·주임원사 임무를 수행하며 지휘관 보좌 및 부사관과 용사들의 병영생활 지도, 장비·시설물 등을 관리하고 있다. “제 좌우명이 ‘할 때는 딱, 실 때는 폭입니다. 말 그대로 할 때는 모든 집중력과 에너지를 모아 임무를 완벽하게 성공시키고, 실 때는 제대로 쉬어 다음 임무를 완수하자는 뜻입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군생활을 해왔고 덕분에 좋은 기회와 운이 따라주었습니다.”

장윤규 상사에게 지난해 최정예 도전은 운명과의 같았다. 623포병대대에서 전포사격통제관을 할 당시, 최정예에 도전하는 포반을 육군본부 선발전까지 올려놓고 516포병대대로 전입을 왔다. 2023년 우승을 623포병대대가 했을 때 자기 일처럼 기뻐했다는 장 상사는 한편으로는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이 더 컸다. 516포병대대에 와서 견인포반을 꾸려 최정예에 나갔을 때 그 누구보다 기뻐했던 이유였다.

“공문으로 ‘최종 우승’ 내용이 하달되었을 때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납니다. 곁에서 물심양면

도와주시고, 포반원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해주신 김기호 상사님과 포반장을 잘 따라준 용사들 덕분에 그토록 바라던 우승의 영광을 안을 수 있었습니다.”

임무수행간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계에 부딪힌다는 느낌이 들 때, 장윤규 상사는 ‘전우애’와 ‘가족’을 통해 자신을 일으켜 세운다. 부대원들과 함께 호흡하며 땀 흘릴 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로를 독려하며 힘을 북돋울 때 그런 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책임감과 전우애가 피어오른다. 가족은 장 상사의 또 다른 에너지원이다. 가정을 이루고 올해 사랑스러운 아기도 태어나 아빠가 된 장윤규 상사는 “자신이 지키는 조국이 곧 우리 아기가 살아갈 세상이라고 생각한다.”며, “군인으로서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야 할 이유가 더 생길 만큼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강인한 군인정신으로 무장하고 임무를 완수하겠다.”라고 각오를 전했다.

자신들이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국가 안보의 굳건한 주춧돌이 된다고 믿는다는 516포병대대 최정예 견인포반원들. 동원훈련 시 예비군들과 호흡을 맞춰 초탄을 날렸을 때 관측소로부터 ‘초탄명중’ 명령이 하달되는 순간이 가장 기쁘고, 보람 있다는 그들은 항상 40kg에 달하는 포탄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군생활에 임하고 있다. ‘하나의 팀’으로서 KH-179 155mm 견인포를 운용하겠다는 견인포반원들은 훈련할 때는 전투에 미치고, 실 때는 전우와 재충전하며 사격임무 하달 시 언제든 사격할 수 있도록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02



03



04

“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강인한 군인정신으로 무장하고 임무를 완수하겠다. ”

# 배움을 통해 성장하며 솔선수범하는 군인이 되겠습니다

육군 제36보병사단 태백산여단  
중위 서수현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명예롭고 가치 있는 직업”이라고 말하는 서수현 중위.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 되길 꿈꾸었다는 서 중위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군인이 되고자 끊임없이 배우며 성장 중이다. 굵은일에 그 누구보다 앞장서는 솔선수범형 리더가 되겠다는 믿음직한 서수현 중위를 만나봤다.

글 | 이지연 작가 사진 | 대위 박영하

### Q 부대 소개

A 제36보병사단은 강원특별자치도 7개 시·군의 지역방위를 담당하는 강원 지역 유일의 지역방위사단입니다. 강릉 무장공비 소탕작전을 비롯해 전군에서 가장 많은 대간첩 작전을 수행했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등 완전작전을 통해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일조한 ‘강원안 보지킴이’ 부대입니다.

### Q 군과의 인연

A 초등학교생이던 2010년에는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 사회적으로 많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뉴스를 접하며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국가와 국민이 나를 필요로 하는 순간,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했고 3번의 도전 끝에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 Q 군인으로 걸어온 길

A 2019년 꿈에 그리던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해 2023년 3월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신입장교 지휘참모과정을 수료하고 같은 해 6월부터 제39보병사단 용호여단에서 기동중대 소대장, 해안 소초장 등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2025년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위탁교육생으로 미국 보병학교의 ‘미군 신입장교 지휘참모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제36보병사단 태백산여단 기동중대에서 소대장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 Q 임무 특성 & 마음가짐

A 최근 사단이 국방부 소형드론·대(對)드론 분야 전담부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여단의 핵심전투력인 우리 기동소대도 사단의 새로운 임무에 부합할 수 있게 체력, 정신전력, 주특기 훈련 등은 물론, 상시 드론 운용 능력과 전술을 구비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단의 전투력을 집중해야 하는 지점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소대가 단합된 원팀(one-team)으로 최고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겠습니다.

### Q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A 미국 보병학교에서 보낸 위탁교육생 시절이 기억에 남습니다. 미군 소위 약 80여 명, 아랍에미리트(UAE)군 소위와 함께 교육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덥고 습하다는 콜럼버스에서 5개월간 생활하며 정말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철야훈련을 하던 날, 텐트 없이 침낭 하나에 의지해 숙영하는 중이었는데 폭풍이 몰아치고 거센 비와 함께 번개까지 내리쳤습니다. 날씨는 최악이었지만 동료들과 팔짱을 끼고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폭풍우 속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 Q 2025 동춘상 수상 소감

A 명예로운 상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점이 아직도 감동스럽습니다. 육군의 최우수 소대장에게만 수여한다는 큰 상을 제가 수상하게 되어 놀라고 기쁘기도 했지만, 고(故) 임동춘 대위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투철한 군인정신을 이어받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매 순간 동춘상 수상자라는 자부심과 그 명예를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국가와 군을 위해 헌신하는 장교가 되겠습니다.

### Q 지향하는 리더상

A 리더는 상급자에게는 신뢰를, 동기와 부하에게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솔선수범’의 자세로 군생활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상 배움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며, 이를 통해 어제보다 더 나은 나로 성장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굵은일에는 앞장서고, 좋은 일에는 부하들을 먼저 생각하며 소통하는 솔선수범형 리더가 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 Q 자기계발 & 취미

A 지휘자라면 체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의 기본인 강인한 체력을 가지기 위해 생도 시절부터 습관으로 자리매김한 뒹굴음과 웨이트 트레이닝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일과 중 체

력단련 시간은 물론 일과 시간 이후에도 체력단련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편입니다. 전문성과 리더십, 군사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 군사학 관련 서적도 꾸준히 읽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대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심리학 관련 책을 읽는 데 재미를 붙이는 중입니다.

### Q 육군 장교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A 장교로 임관한 이후 지금까지 한순간도 제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명예롭고 가치 있는 직업입니다. 아직 임관을 망설이고 있는 후배들이 있다면 가치 있는 이 길을 선택해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길을 함께 걸으면 좋겠습니다.

### Q 포부와 바람

A 어린 시절부터 다짐하고 꿈꿔온 육군 장교가 되었고, 매 순간 그때의 나를 떠올리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보람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소대장으로서, 육군 장교로서 매일 긍정적이고 힘차게 보낼 수 있어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대한민국 육군을 대표하는 믿음직한 장교가 되겠습니다.



# 프레임에 담은 진심 아름다운 선행으로 이어지다

제15회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 대상 수상자,  
육군학생군사학교 정훈실 이승룡 주무관



‘국민의 군대, 우리 육군의 진심’을 담은 작품이 대상이 된 만큼 상금을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었습니다.



지난 9월 17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제15회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이하 호국미술대전)’ 시상식이 열렸다. 올해 대통령상(대상)은 육군학생군사학교(이하 학군교) 정훈실 소속 이승룡 주무관의 사진 작품 ‘화마의 흔적’이 차지했다. ‘화마의 흔적’은 지난 3월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경북 산불 진화 과정에 투입된 육군 장병들의 임무 수행 모습을 포착한 사진이다. 이승룡 주무관은 1,000만 원의 상금을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해 써달라며 전액 기부했다.

글 | 이지연 작가 사진 | 윤희진 주무관

2025년 3월, 경북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한 불은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산하며 사상 최대 규모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낸 초대형 산불로 기록되었다. 사망자와 부상자는 물론 주민들이 살던 마을이 화마에 사라지고, 주택이 소실되는 등 정신적, 재산적 피해가 상당했다. 육군 장병들도 잔불 제거, 방화선 구축, 구호 물품 지원, 피해 지역 대민 지원 및 복구 작업에 투입됐다.

“경북 지역에 산불이 발생했을 당시 50사단에 근무 중이었습니다. 지역 내 재해재난이 발생하면 정훈실 인원들이 현장으로 투입되어 미디어 촬영 및 현장 취재 지원 임무를 수행합니다. 당시 산불은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될 만큼 상당한 위력을 내뿜었습니다. 실제 취재자 찾아간 화재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산불 화재 진화 및 대민 지원을 위해 현장에 투입된 육군 장병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장병들은 절망에 빠진 지역민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두려움도 잊은 채 전투화 끈을 꼭 동여매고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승룡 주무관은 매캐한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올라오는 산속에서 시커멓게 잿더미로 변한 땅바닥을 굽어가며 잔불 진화에 여념 없는 장병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언제 바람이 불어와 다시 불이 붙을지 모를 위험을 감수하고, 진화에 집중하는 모습을 기록하기 위해 셔터를 눌렀다. 이 주무관은 ‘화마와의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결의를 가지고 임무수행 중인 장병들의 굳건한 모습을 널리 알리고 싶어 호국미술대전에 작품을 출품했다고 전했다.

‘화마의 흔적’을 자세히 보면 밑부분은 불에 타 새카맣게 변했지만, 잔불 제거 중인 장병들의 머리 위에는 연초록의 소나무 잎이 살아서 넘실댄다. 모두가 힘을 합한다면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은 남아있음을 말해주는 것 같다.

“화마가 할퀴고 간 흔적들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 후대에 넘겨줘야 할 너무나도 소중한 유산입니다. 시간이 약이 되는 것을 넘어 쓰라린 기억을 꺼내, 한순간에 소중한 유산을 잃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자는 마음으로 촬영에 임했습니다.”

육군 장병들의 숭고한 헌신과 진한 땀방울이 스며든 재난 재해현장을 있는 그대로 프레임에 담아낸 것인데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강함을 현장에서 증명하라!’는 마음가짐으로 임무를 수행 중인 이승룡 주무관은 육군 장병들의 강한 눈빛을 담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시간이 지나도 그날의 감동이 사진에서 전해질 수 있도록 프레임에 진심을 담고자 노력한다고도 덧붙였다.

호국미술대전에서 ‘사진’ 작품이 대상을 차지한 것은 처음 있는 일. 이 주무관은 상금으로 받은 1,000만 원을 경북 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해 써달라며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해 주변의 놀라움을 샀다.

“상금 기부는 ‘프레임에 진심을 담는 일’을 실천하고자 했던 제 의지였습니다. 또한 호국미술대전의 본질을 생각하면 ‘기부’가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영예인 대상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생각했고 ‘국민의 군대, 우리 육군의 진심’을 담은 작품이 대상이 된 만큼 상금을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었습니다.”

이승룡 주무관은 ‘사랑’이라는 주제에 관심이 많다. 남녀의 감정을 넘어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따스함이 깃든 애정 넘치는 순간들’을 포착하는 것이다. 산불 진화 지원 작전에 참여한 장병들의 헌신 또한 다른 의미에서 ‘인류애’가 깃든 모습이었다.

50사단에서 학군교로 자리를 옮긴 이승룡 주무관은 “군인은 멋있다, 자랑스럽다, 최고다!”라는 말이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장교의 꿈을 위해 담금질하고 있는 사관후보생들의 결의와 진심을 프레임에 잘 담아내겠다고 전했다.

이 주무관이 속한 학군교는 정예 초급장교를 양성하는 전군 최대의 장교 양성기관으로 학군사관·학사사관·간부사관 등 소대장 과정을 비롯해 의무·수의, 전문·법무사관 등 총 10개 과정, 약 8,000여 명의 사관후보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이승룡 주무관의 사진기에 어떤 진심이 포착될지 기대된다.

# M2 & K6 중기관총

M2 중기관총은 미국의 대표적인 중기관총으로, 12.7mm 대구경의 탄환을 사용하는 강력하고도 오래된 화기다.

K6 중기관총은 M2 중기관총의 한국형 개량 모델로, 총열 교체 방식이 더 간편하게 개량되어 신속성과 안정성을 높였으며, 지속 사격에 유리하고 강력한 화력을 자랑한다. 자주포, 장갑차를 비롯해 보병부대에도 운용되는 등 대한민국 육군의 주력 중기관총으로 사용되고 있다.

글 | 홍희범 작가

## 미국의 대표적인 M2 중기관총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최일선 현역장비로 사용되는 무기는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꼽는 것이 M2 HMG(Heavy Machine Gun, 중기관총)이다. 정확히는 M2HB, 즉 M2 중(重) 총열(Heavy Barrel)식 중(重)기관총이 맞는 명칭이다.

M2 중기관총은 1921년에 미국의 천재 총기 설계자 존 M. 브라우닝이 대전차 및 대공 임무 모두에 쓸 수 있도록 개발한 것이다. 원래는 1차 세계대전에 사용하기 위해 1917년부터 설계를 시작했으나 완성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인 1921년에 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M1921 기관총이라고 불렸다. 원래는 수랭식, 즉 물로 총열을 냉각시키는 방식이었으나 1930년대에는 공랭식, 즉 공기를 이용해 총열을 식히는 방식으로 재설계되면서 총열이 원래보다 많이 굵어지고 이름도 M2HB로 바뀌었다. 참고로 이 총은 '50구경 기관총'으로도 불리는데, 이는 탄두 직경이 50구경, 즉 12.7mm(0.5인치)이기 때문이다.

M2HB는 2차 세계대전 중 미군의 전차나 차량들 대다수에 대공/대인용으로 장착되었다. 원래의 목적이던 대전차 용으로는 전차 장갑이 강화되면서 쓸 수 없게 되었지만, 항공기나 경장갑차량, 일반 차량들에는 상당한 위력

을 발휘했고 대인용으로도 매우 효과적이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도 사용은 계속되어 6·25전쟁, 베트남 전쟁은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미 육군의 제식 중기관총으로서 개량형인 M2A1이 일선에서 활약중이다.

이처럼 오랫동안 사용되는 M2HB는 우리 군에서도 수십 년동안 사용되어왔다. 하지만 우리 군이 사용한 M2HB는 대다수가 미군이 2차 세계대전 중에 사용한 노후 총기라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였다. 게다가 M2HB에는 기본 설계상의 약점이 있다. 총열 교환이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M2HB의 원형은 총열 자체를 나사처럼 돌려 풀고 조이는 식으로 조립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시간이 걸리는 데다, 총열과 노리쇠몸치 사이의 간격을 정확히 잡기 위해 전용 공구를 이용해 늘 측정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가 필수였다. 그러지 않으면 격발이 안되거나 반대로 탄피 파열이 벌어지는 등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는 번거로운 것이 사실이고, 그 때문에 1980년대에는 벨기에의 FN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한 M2HB QCB(Quick Change Barrel), 즉 신속 총열 교환형을 출시했다.



출처: 국방일보



## 지속 사격 유리한 한국형 개량 모델 K6 중기관총

QCB형은 오래지 않아 많은 나라에 도입되었는데, 2010년대에 미군이 도입한 M2A1도 이 QCB형을 기초로 미국에서 만든 유사형이다.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받은 총기 중 하나가 바로 1989년부터 우리 군에서 사용중인 K6 중기관총이다.

K6는 이미 1980년대에도 노후화로 교체 수요가 제기되기 시작한 M2HB를 대체하기 위해 통일중공업(현 SNT 다이내믹스)이 개발한 기관총이다. 사실 기본 설계 자체는 M2HB와 별 차이가 없고 부품 중 상당수는 동일하며 조작법 및 외관도 거의 차이가 없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총열 교환 방법이다. 별도의 도구도 필요없고 격발 간격 조정같은 절차도 없이 신속하고 쉬운 총열의 교환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기존의 M2HB보다 지속 사격에 더 유리하게 되었다.

K6는 현 시점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M2HB를 사실상 전부 대체하였다. K1 전차나 K2 전차, K200 장갑차, K9 자주포,



KAAV(상륙돌격장갑차) 등 매우 다양한 장갑차량이나 자주포, 차량들에 장착되며 삼각대에 거치한 상태로 보병부대에서도 운용한다.

원래 K6는 육군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관총이었으나, 과거 연평해전 등의 교훈을 통해 함정용으로도 그 영역이 확대되었다. 기존의 M60 기관총보다 사거리와 위력이 강하기 때문에 초계함과 고속정에 탑재되었고, 2011년에는 천안함 피격사건 1주기를 맞으면서 당시 전사한 민평기 상사의 유가족의 노력으로 18정의 K6 중기관총이 기증되어 해군 초계함에 탑재되었다. 또한 최신행 고속정인 PKMR에는 K6가 RWS, 즉 원격조종 무인총탑에 탑재되어 교전 시 사수가 적에게 노출되지 않고 사격을 지속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런 K6 중기관총도 벌써 도입된 지 36년이 되어가므로 후계 기종에 대한 논의가 없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 미군에서도 후계 총기가 어떻게 될지 미지수인 상황이라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상당기간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 혹한의 습격, 한판 붙어보는거야!

촬영장소 | 동부전선 | 사진 | 박성우 작가



기획 다큐멘터리

# 대한민국, 최동북단을 가다

제22보병사단 금강중대



금강중대는 대한민국 최동북단에 위치해 가장 중요한 최전방 수호 경계작전을 수행 중입니다. 남과 북의 초소 거리가 580m인 그곳, 365일 24시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곳에서 금강중대 장병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상황이 발생할지 예상할 수 없기에 그들은 실전적 훈련을 반복합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대한민국의 평범한 하루를 위해 24시간 경계작전을 수행하는 금강중대 장병들을 응원해주세요.

#육군

#금강중대



아이콘텐츠: 가을편

# 흰수염고래

육군사관학교 군악대(feat.재현&유승우)



2025년 아이플리 가을편이 돌아왔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여름, 함께이기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묵묵히 서 있습니다.  
 지금도 제 위치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전우들과 저희를 믿고 응원해주는 모든 분들께 이 노래가 닿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흥해라!!! 청춘이여  
 언젠가 흰수염고래처럼 헤엄쳐 두려움 없이 이 넓은 세상 살아갈 수 있길..

#힐링

#자작나무숲

#윤도현밴드



# 더 부드럽게 더 자유롭게! 로봇, 인간의 한계를 확장하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송가혜 박사,  
육군미래혁신연구센터 군사과학기술연구대 김형남 주무관, 일병 김동준

현대전은 이미 로봇을 활용한 전투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위험천만한 전장에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로봇이 단순한 강제 중심의 설계를 넘어 유연성과 순응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군사과학기술연구대에서는 '소프트 로봇 기반 다기능 유연 구동시스템'을 연구 중이다.

글 | 송지유 작가

## 소프트 그리퍼 & 웨어러블 시스템

복잡한 전투환경에서 부상자를 신속하게 구조하고 초정밀·고하중의 장비를 안전하게 옮기기 위해서는, 로봇에게 강한 힘뿐만 아니라 사람처럼 유연하고 순발력 있는 대응이 요구된다. 이에 연구팀은 기존의 딱딱한 금속 로봇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소프트 로봇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고안정성 구동 시스템과 웨어러블 보조 장치를 개발하고 있다.

연구의 가장 큰 축은 소프트 그리퍼(Soft Gripper), 즉 부드러운 로봇 손을 만드는 기술이다. 기존의 금속 기반 로봇 손은 단단한 물체를 다루는 데에는 적합하지만, 불규칙하거나 섬세한 물체를 잡을 때 손상 위험이 크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팀은 유연한 복합소재와 직조(Weaving) 구조를 결합하여, 고하중을 견디면서도 형태를 자유롭게 변형하는 고하중·고적응형 소프트 그리퍼를 설계하였다. 주요 소재는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이며, 강도와 유연성을 보완하기 위해 알루미늄, CNT(탄소나노튜브), 패브릭(Fabric) 소재도 함께 적용했다.

이렇게 완성된 그리퍼는 구조적 강성과 변형 복원력을 동시에 확보해 충격을 흡수하면서도 형태를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어 다양한 형태의 장비나 보급품을 안정적으로 움켜질 수 있다. 특히 자체 무게 대비 수백 배에 달하는 하중을 지탱할 수 있으며, 약 2,000원 정도의 저렴한 제작비와 10분 이내의 짧은 제작 시간으로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군수 물류, 탄약 수송, 전상자 후송 등 인력이 투입되기 어려운 위험 환경에서 자동화된 파지 및 운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 다른 연구 축은 소프트 액추에이터(인공근육) 기반 웨어러블

로봇 기술이다. 이 시스템은 사람의 근육처럼 부드럽게 수축·이완하며, 사용자의 움직임을 보조하거나 그 능력을 증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작전요원의 근력을 강화하고 피로를 줄여주며, 장시간 작전이나 무거운 장비 운반 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동시에 유연한 소재 구조 덕분에 착용자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고, 높은 착용감과 안전성을 제공한다.

연구팀은 이 웨어러블 시스템을 디지털 트윈 환경과 연계하여 원격 로봇 제어(텔레오퍼레이션) 기술로 확장하는 연구도 병행 중이다. 실제 착용자의 동작을 실시간으로 가상 공간에서 재현하고, 이를 원격 로봇이 사람의 동작을 그대로 구현하여 정찰, 탐사, 폭발물 제거 등 직접적인 접근이 어려운 군 작전에서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로 기대된다.

이처럼 연구 개발중인 소프트 로봇 기술은 단순히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 위험 속에서도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며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는 기술이다. 연구팀은 이를 향후 국방, 재난 구조, 우주 탐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직조 그리퍼의 다품종 물품 파지 성능



## MINI INTERVIEW

“기존 로봇의 제약 극복과 핵심 소재 개발에 중점”



● 송가혜 박사 ●

군사과학기술병과 함께 군사적으로 필요한 연구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기존 로봇이 극복하지 못했던 제약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특히 핵심 소재 개발에 중점을 두고, PP(폴리프로필렌), TPU(열가소성 폴리우레탄), 패브릭, PET 등 다양한 재료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중에서도 PET의 경우 두께별로 시편을 제작하여 강성과 탄성의 균형을 세밀하게 검토했으며, 환경 변화에 따른 변형 정도와 피로 내구성 등 반복 테스트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소재 조합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프트 그리퍼 연구에서는 크기에 비해 충분히 무게감이 있는 파지 대상을 찾는 일이 쉽지 않은 과제였습니다. 일반적인 테스트 시편은 너무 가볍거나 형태가 일정하여 실제 하중 조건을 재현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에 연구팀은 현실적인 조건을 구현하고자 실제 헬스용 덤벨과 운동기구를 구매하여 파지 실험에 활용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무게 중심이 다르고 표면 질감이 다양한 물체를 반복적으로 테스트하며, 그리퍼의 하중 분산 능력과 구조적 안정성을 성공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군사환경에서 다양한 임무에 활용 가능성”



● 김형남 주무관 ●

현대의 다양한 전쟁 환경 속에서 전투 요원의 체력적 한계를 극복하고 임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소재 개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소재 선정 후 시제품 성능 검증 과정에서 구조적 간섭이나 회전 동작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연구팀은 회전에 방해되지 않도록 나사부를 매립형으로 수정하고, 파지 대상의 크기와 특성에 맞춰 그리퍼의 전체 크기와 소재를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파지 안정성과 구조적 완성도를 높였으며, 다양한 환경에서도 일관된 성능을 유지하도록 보완했습니다.

이 연구 성과가 실용 단계에 이르면, 군의 모의 전투 훈련이나 VR 기반 훈련 시스템에 본 기술을 접목하여 실제에 가까운 훈련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웨어러블 형태의 보조 수단으로도 활용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본 연구는 군사 환경에서 다양한 임무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앞으로 민간 기술을 군사적 상황에 맞게 변형 및 개선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여나가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군사시스템의 가능성 확인”



● 일병 김동준 ●

저는 웨어러블 로봇 제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로봇은 사람의 움직임을 인식하고 실시간 피드백으로 원격 로봇을 제어(텔레오퍼레이션)하여, 위험 환경에서도 사람이 직접 접근하지 않고 정밀한 조작을 가능케 합니다. 연구를 진행하며 가장 큰 어려움은 인체에 직접 착용하는 장비의 안전성과 유연 소재의 내구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착용자의 불편함 없이 충분한 동작 반응성과 출력 성능 구현은 물론, 구동 과정에서 인체에 전류가 전달될 위험을 방지하는 데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특히, 착용자별 신체 치수 차이로 인한 구동 범위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를 재설계하고 일부 부위에 탄성 소재를 적용, 다양한 체형에 맞는 자연스러운 착용과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구조를 구현했습니다. 유연 소재 특성상 구조적 안정성 확보가 어려워 반복 구동 실험과 소재 보강으로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연구로 인간의 감각과 동작을 확장하는 지능형 군사 시스템의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향후 실전 배치 가능한 웨어러블 로봇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사이버전 101』

## 육군3사관학교 대위 고승범

미래 전장에서 사이버전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군사교육기관에서 사이버전 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사이버전 101』은 사이버전의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4개 사관학교 교수진이 공동 집필한 사이버전 입문서다. 정보보안, 사이버전 환경, 공격과 방어 기술 등을 폭넓게 소개하고 있다.

글 | 이효진 작가 사진 | 윤현수 주무관

### Q.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육군3사관학교 국방사이버학과 생도들에게 사이버전 관련 강의를 하고 있는 대위 고승범입니다. 저는 다영역 작전 중 군사 필수 과목인 사이버전 전공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래 군의 주역이 될 생도들이 전장 환경 속에서 사이버전을 잘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약 10년 만에 모교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후배들에게 전공 지식을 전하는 과정에서 함께 성장하며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 Q. 자신의 강점을 알려주세요.

저의 강점은 실천력과 회복 탄력성입니다. 먼저 실천력은 “시작이 반이다.”라는 마음으로 행동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에 생각만 하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못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임무를 받게 되면 상황이나 자원이 부족해도 일단 시작합니다. 그 후 이를 바탕으로 보완하면서 진행합니다. 실제로 그런 과정에서 더 완성도 높은 결과가 나옵니다. 두 번째 강점은 회복 탄력성입니다. 군 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갑작스러운 업무가 자주 생깁니다. 그럴 때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빠르게 회복합니다. 그 결과 다음 임무에 지장이 없도록 집중할 수 있습니다.

### Q.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이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순신 장군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군인으로서의 면모뿐 아니라 인간적인 면도 배우려 노력합니다. 장군님은 여러 번 무과에 낙방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습니다. 그 모습이 저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 '징비록'에 보면, 장군님이 운주당을 세우고 운영했습니다. 여기서 밤낮으로 장수들과 군사 일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지위가 낮은 병사들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은 자신의 지위나 체면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건전한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리더십은 우리 군이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이해한다면, 우리 육군이 앞으로 사이버전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이룰 것이라 확신합니다. ”



사이버전 101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컴퓨터과학 교수 저자(글)  
/양서각

### Q. 소개하고 싶은 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책은 『사이버전 101』입니다. 이 책은 육군3사관학교를 비롯해,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의 교수들이 함께 집필했습니다. 사이버전을 처음 접하는 생도들도 쉽게 이해하도록 필수 내용을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현대전에서 사이버전의 중요성이 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이버전은 전시와 평시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민간 영역의 피해가 더욱 큰 특징이 있습니다. 회색지대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아군과 적군을 명확히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책은 이런 복잡한 전장 환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군 생활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해킹이나 사이버 공격의 원리를 알고 대처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책은 전장뿐 아니라 생활 속 보안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책이라 생각합니다.

### Q.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첫째, 이 책은 현대사회에서 꼭 알아야 할 사이버 기본 지식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즘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비밀번호 관리 같은 문제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런 문제를 단순히 기술적인 현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복잡한 용어나 기술 개념도 쉽게 풀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비전공자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에 대한 최소한의 전공지식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책이기에 추천합니다.

둘째, 이 책은 사이버전에 관심이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됩니다. 처음 배우는 사람도 기초부터 차근차근 따라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읽다 보면 자신이 더 깊이 탐구하고 싶은 분야를 자연스럽게 찾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입문서가 아니라, 사이버 분야로 나아가는 이정표 역할을 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대뿐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누구에게나 유익한 기본서라고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 Q. 이 책 내용 중 가장 인상 깊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미래전은 대량 살상전과 소모전의 양상을 벗어나 피아간의 양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질적 피해를 극대화하는 효율과 효과중심의 전쟁으로 바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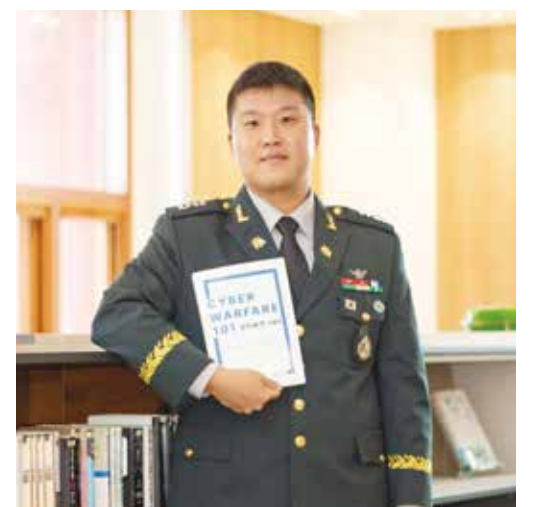
전통적인 전쟁은 전투원과 전투 장비 간의 전투를 통해 목표를 달성합니다. 사이버전의 목표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적의 피해를 강요하여 우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양상은 사이버전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이버전을 더욱 이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버 영역은 기존 군사력과 다릅니다.

대칭 전력이라 아니라 비대칭 전력으로 평가됩니다. 명확한 전투력을 수치로 가능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예측과 대응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사이버전의 전략적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사이버전이란 국가 또는 그 요원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에서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타국을 대상으로 적대적 행위를 가하고, 이에 대하여 타국이 사이버공간에서 정보기술을 통해 방어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사이버전은 사이버공간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발생하는 전투 행위입니다. 사이버공간은 군사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널리 활용됩니다. 그래서 군사 영역과 민간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사이버 공격의 피해는 민간 영역에서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전에 대한 이해는 전 국민이 함께 가져야 할 문제입니다. 또 이를 통해 사이버 안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Q. 마지막으로 우리 육군에 하실 말씀은?

사이버전을 직접 체험하는 군 조직의 구성원은 많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병과와 사이버 특기 인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담당 자신의 업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사이버전은 다른 군사 활동처럼 눈에 보이는 훈련이나 성과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누리는 대부분의 활동은 사이버공간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육군 또한 네트워크와 클라우드 환경에서 업무와 훈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전은 이미 우리 일상과 군의 모든 영역에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더욱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구성원 모두가 사이버전에 대한 기본 이해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이해한다면, 우리 육군이 앞으로 사이버전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이룰 것이라 확신합니다.



## AROKA 고위급 리더십 안보포럼 개최



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는 지난 10월 22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협회 이사진, 학계와 방위산업 관계자, 미·중 관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2차 AROKA 고위 리더십 안보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미·중 경쟁 심화에 따라 '미·중 관계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우리 안보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박철균 전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이 '트럼프 2기 미·중 경쟁 전망'을 발표했으며, 신경수 한미동맹재단 사무총장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중국의 대전략을 설명했다. 이어 이창형 대륙전략연구소장이 중국군의 지능화 발전을 주제로 발표했고,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이 토의를 이끌었다.

권오성 육군협회장은 "앞으로도 국내외 안보 현안에 대한 시의적절한 의제를 선정해 포럼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주요 현안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대한민국의 미래와 안보의 중요성을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제대군인 권익향상' 위한 안보세미나 개최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신상태)는 지난 11월 6일 서울 공군호텔 컨벤션홀에서 '제대군인 권익향상 방안'을 주제로 안보세미나를 열었다. 행사에는 참전·친목단체장, 국방안보 전문가, 국가보훈부 관계자, 향군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 진행을 맡았으며, 윤재민 제대군인지원협회 교육원장과 박효선 국가보훈부 평가복지위원이 주제 발표에 나섰다. 두 발표자는 단기복무 제대군인 지원과 사회정착 강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상태 회장은 "제대군인은 단순한 보훈 대상이 아니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라며 "존중받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때 국방력도 더욱 탄탄해진다"고 말했다.

향군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제대군인 권익향상을 위한 실질적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11월 독자의견



11월호 육군지에 실린 KCTC 기사에 울컥했습니다. 저희 아들도 이번 훈련에 참가했는데, 다녀온 후 한층 성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잘 견뎌낸 덕분에 너무나 뿌듯해 하고 자신감과 용기를 얻은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두려웠지만 잘 견디고 극복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예전보다 인내심도 커졌고,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아무쪼록 지금처럼 군 생활을 잘 마치고 멋진 대한의 아들로 제대하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박난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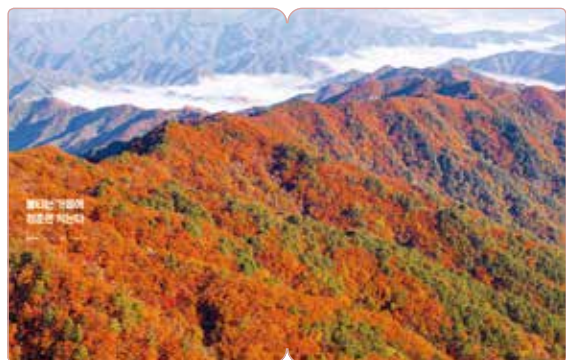
'2025 ROK Army 트레일러닝' 기사를 읽으며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자연 속을 달리는 육군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자연을 지키며 건강한 소통을 이어가는 모습에서 새로운 군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특전사 코스는 강한 체력과 도전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어 감동적이었습니다. 힘든 구간을 끝까지 완주하는 참가자들의 모습이 진정한 군인의 정신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과 군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가 더욱 더 발전하고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 이한결



자랑스러운 육군, 그중에서도 육군 1포병여단 장병들의 용감무쌍한 미담이 인상 깊었습니다. 새벽 2시경, 인근 가구 제조 공장 화재 현장에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시민들을 구조한 이야기 속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위험에 처한 순간, 망설임 없이 달려가 도움을 주겠다는 장병들의 사명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 배명순



11월호 책자에서 다양한 육군 소식을 읽으며 오랜만에 늦가을 훈련 시절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산악 행군 중 땀으로 얼룩진 전투복, 햇볕에 그을린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화려한 단풍의 풍경이었습니다. "불타는 가을에 청춘은 익는다."라는 화보 속 사진은 제 군 복무 시절을 꼭 닮아 놀라웠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들었던 새소리까지 다시금 떠오르며, 국가 방위의 중심은 역시 육군이라는 믿음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 이형철

## 대한민국 육군 공식 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세요.

※ 스마트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를 스캔해 주세요~



대한민국 육군 블로그



대한민국 육군 페이스북



대한민국 육군 인스타그램



대한민국 육군 유튜브



## 12월 의견을 보내주세요

독자의견을 우편 또는 이메일(육군지 편집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독자의견 기고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2025년 12월 15일까지,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바랍니다.)




11월 육군 독자의견 당첨자

(우)32800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사서함 501-3호  
육군본부 정훈실 육군지 담당자 앞  
육군지 편집실 Email: 69oon@naver.com

박난희, 이한결  
배명순, 이형철

구독 신청 및 해지, 주소변경은  
우편발송업체로 연락바랍니다.

☎ 070-4109-5183  
✉ zerodm@naver.com

국가방위의 중심군 

# 육군